

페레스트로이카와 社會主義 經濟理論에 관한 批判的 考察

朴 榮 浩*

<目 次>

- I. 序 論
- II. 蘇聯社會主義革命的 再照明과
社會主義 建設過程
- III.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이 등장하게 된
蘇聯社會主義經濟의 現實과 問題點
- IV.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의 目的과 內容 및 評價
- V. 蘇聯社會主義體制 管理運營에 있어서
社會主義 政治經濟學의 責任
- VI. 結 論

I. 序 論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한 현존 社會主義國家들의 급격한 혁명적 변혁의 소용돌이는 우리에게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抑壓과 搾取로부터 인간을 해방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이룩하겠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國家社會主義¹⁾로 전락되어 버려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는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全般的이고 總體的으로 고

* 韓神大學校 經濟學科

1) M. Gorbatschow, Die Zukunft der Welt und der Sozialismus. In: Die Neue Gesellschaft/Frankfurter Hefte, Sonderheft 1, Frankfurt (1990, S. 10).

찰을 한다는 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現實 社會主義體制의 경제적 실패의 원인이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이론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가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소련사회주의혁명의 재조명과 사회주의건설과정,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등장하게 된 소련사회주의 경제현실과 문제점,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평가, 소련사회주의 體制管理運營 실패에 있어서 社會主義 政治經濟學의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蘇聯社會主義革命的 再照明과 社會主義建設過程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17년 10월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인류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成熟發展되면서 나타나는 過剩生産이나 恐慌, 搾取와 抑壓과 같은 자본주의체제의 諸矛盾들 때문에 발생한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의한 해방혁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러시아제국의 봉건적 殘滓가 清算되지 못한 반봉건적 상태와 서구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간섭이 증대되어지는 반식민지적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脫封建・脫植民地的 革命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그 당시 제정러시아의 半封建的이고 반식민지적 사회구조 속에서 만연되어 있던 부정, 부패, 비리, 빈부격차, 봉건적 착취와 억압, 식량부족, 재정위기, 정치경제적 혼란 등과 같은 社會變革의 절대적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었을 때 사회주의적 이념과 이상을 가진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당원들이 사회주의를 강요한 사회주의적 정치혁명이었지 역사발전의 必然的 法則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정한 사회주의적 혁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된 생산력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未熟하고 低級한 생산력발전수준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산주의건설은 불가능했고 사회주의건설조차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경제정책들은 1920년대의 자본주의적 新經濟政策(NEP)으로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뒤 193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탈린주의적 行政官僚的이고 中央集中的 命令經濟政策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혁명 이후 소련의 사회주의건설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소련의 사회주의혁명 자체가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명 초기부터 1921년까지의 戰時共產主義 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적 대혼란이 일어나서 경제상황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사회주의혁명에 무관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으며 그 이외의 일반대중들도 社會主義的 革命路線에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전시공산주의정책을 쓰지 못하고 1921년부터 1928년까지 신경제정책(NEP)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 정도였다.²⁾

그런 이유 때문에 레닌이 사망한 1924년부터 소련 사회주의건설의 政策決定 論爭(농업생산증대 우선정책론과 군사력 및 工業生産力伸張 優先政策論)이 치열하게 벌어졌었고, 결국 후자의 입장을 택한 스탈린은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를 실시하여 工業化 政策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곧 소련의 10월혁명이 공업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도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했다고보다는 國家社會主義的 방식에 의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10월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체제는 모든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어서 舊體制를 몰락시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에 있어서도 낡은 사회 속에서 새로운 生産關係의 物質的 存在條件이 생성되어서 새로운 보다 높은 생산관계로 대체되어진 그러한 사회체제가 아닌 것이었다.

이러한 生産力과 生産關係間의 作用法則³⁾에 입각해서 소련의 10월혁명을 분석해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體制止揚的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적 혁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소련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운동의 근본원인은 자체의 低級한 生産力發展水準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사회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켰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글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暴力的으로 강요

2) 그 당시의 소련경제사정에 대해서는 M.Dobb(1948, pp. 34~39) 참조.

3)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MEW 13, S.9.

4) M. Gorbatschow, 앞의 글, 11페이지.

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강요된 사회주의(Zwangssozialismus)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이념의 몰락인 것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神聖冒瀆인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소위 소련의 정통과 맑스주의 政治經濟學에 있어서도 소련의 10월혁명을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生産力이 발전되면 生産關係가 변혁되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단계의 생산관계(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먼저 혁명적으로 형성되어도 낮은 수준의 생산력을 높은 단계의 생산관계에 相應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相互作用的 辨證法이라고 강변을 해왔고 생산력발전에 의한 생산관계의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生産力主義者들이라고 매도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의 소련사회주의의 歷史的 경험을 통해서 生産關係가 역으로 生産力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생산력발전이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그것에 照應하는 생산력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소련 사회주의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작용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낮은 생산력발전수준에서는 높은 단계의 生産關係와 社會體制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現實的 表現인 것이다.

III.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이 등장하게 된 蘇聯社會主義經濟의 現實과 問題點

蘇聯은 1917년 10혁명 이후 사회주의국가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一黨獨裁的 계획경제방식에 의해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공업화수준에 도달하려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工業化水準까지 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蘇聯經濟는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경제계획의 실패가 빈번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경제상태와 경제발전에 대한 制動現狀이 나타났고 1980년대 초에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질이 하락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高度技術과 尖端技術의 산업용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산에 투입된 노동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

비한다는 共產主義的 分配原則을 적용할 만큼의 사회적 생산력발전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주의적 균일분배원칙을 적용하게 된 결과 능력만큼은 노동하지 않고 임금만은 균일하게 요구하는 墮落한 勞動倫理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윤리가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는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必然的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搾取하는 資本家階級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술선해서 일하게 되면 勞動意慾도 고조되고 노동생산성도 제고되어 자본주의사회보다 훨씬 월등하고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회주의의 優越性에 懷疑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노동윤리의 타락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동의욕 刺戟方策을 도입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책 때문에 자본주의적 俗物根性에 물들게 되어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의식의 타락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알콜중독, 마약중독, 犯罪增加, 저속한 취미와 享樂風潮의 만연, 노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생충적 태도의 만연 등이 일반화되고 있고 관리들은 부정, 부패, 사기, 뇌물수수, 盲從, 追從 등을 일삼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1980년대 초까지의 소련 사회주의경제의 현실이었으며 問題點들이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말처럼 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구조적이고 根本的인 原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회주의혁명과정 자체에도 根本的인 원인이 內在하고 있지만 혁명 이후 사회주의국가건설 과정에서 소련이 택한 기존의 소련경제 관리운영방식이 경제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行政官僚的이고 정치적인 지시명령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소련경제 관리운영방식은 한마디로 命令經濟體制에 의한 운영방식이었다. 경제에서 이러한 명령경제체제가 작동되게 되면 경제의 경직성과 負의 생산성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제가 硬直性을 갖게 되면 변화되고 있는 현실 경제에 적응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기술, 자연자원의 相對的 枯渴, 環境公害, 人口變動, 새로운 價值觀, 人間慾望의 變化 등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명령경제체제 하에서는 目標指數가 생산결과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다한 생산자원의 浪費를 막을 수가 없게 됨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결과물보다 더 많은 생산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負의 생산성을 지니는 경제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현상이 소련경제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實例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련의 경제가 성장되고 도시화가 촉진되었을 때 그 시작한 社會間接資本(운수, 수도, 운하, 난방시설 등)의 건설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제적 柔軟性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생산구조의 대량건설의 과장은 초기의 성장효과를 불러일으킨 것과는 반대로 오늘날에 와서는 한꺼번에 대량의 물리적 감모를 대체해야만 되게 되었기 때문에 經濟構造的 破局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업생산부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제8차 5개년계획기간(1965~1970년) 동안에 대규모로 확장시킨 생산능력이 1980년에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절대적 감소화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명령경제체제 하에서는 硬直的인 景氣循環性을 갖게 되어서 주기적으로 파국적 상황이 도래하게 되며 그러한 현상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난 소련경제의 위기인 것이다.

IV.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의 目的과 內容 및 評價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소련의 위기적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가 1985년 4월 소련共産黨 中央委員會 總會에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소련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人間的 要素를 활성화해서 소련사회의 道德的・心理的 意識을 혁신하겠다는 데 있었다.

제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설정한 페레스트로이카의 목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⁵⁾

5) XXVII. Parteitag der KPdSU. Dokumente, Moskau (1986, S. 49~50).

소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소련사람들의 福祉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까지 향상시키며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수준과 구조를 각 개인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정신적인 豐饒를 가져올 수 있고 각 개인들의 능력과 재능의 완전한 開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소련사회주의의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장한다.

또한 1987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저술된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라는 책과 1989년 11월 26일자 <프라우다>지에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글들을 통해서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그 글들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소련사회주의체제는 歪曲되어 있고 停滯되어 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기존의 소유관계, 경제적 메카니즘, 정치체제등을 재편하는 한편 소련사회의 精神的, 道德的 氣流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전분야에 있어서 계획과 명령체계를 維持 強化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올바른 맑스주의적 方法論과 世界觀, 價值體系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은 소련의 사회주의개념에 대한 인식의 大轉換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과정에서는 權威主義的 體制와 官僚主義的 體制는 폐기되고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구조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최상의 발전을 거두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서도 스탈린식의 敎條主義的 해석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에서 상품생산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은 맑스주의 經濟學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맑스가 社會主義社會에서 상품생산의 극복을 이야기한 것은 사회적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생산력발전의 최고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상품생산에 대한 인식 속에는 단지 社會的 所有關係만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련의 저급한 생산력발

전수준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상품생산은 극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개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蘇聯社會는 핵심적인 내용을 배제시켜버려 왔다는 것이다. 원래의 社會主義思想은 인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을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의 소련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을 당과 국가라는 기계의 나사쫂으로 여기고 노동자들의 조직을 그 기계의 연동 벨트쫂으로 여겨 왔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目的이어야 하는데 당과 국가가 目的이 되고 인간은 手段化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사상의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을 무시하는 集團主義가 아니라 개개인의 각자의 집단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집단주의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집단을 위한 개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사상의 본질에 대한 曲解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련에서는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人間的 個性이 무시되었으며 개인의 발전이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개인보다 사회가 우선한다는 명분 하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자유의 영역이 소외당했으며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人間主義的 本質이 枯死해버렸던 것이다. 인간자체,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이익, 인간의 생동감있는 삶이 소련사회주의에서는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레스트로이카는 非商品市場經濟的이고 행정관료적 명령경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교조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國家獨占的 社會主義를 지양해서 復數主義的이고 민주주의적인 상품과 시장이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소련이 혁명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現實的으로 그러한 사회주의의 숭고한 이상과 이론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의 문제와 지난 5년 동안의 成果가 과연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원래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하자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執行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非常大權이라는 政治權力과 소수 진보적인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70여 년동안 밑으로부터의 民主主義的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혁명적 개혁을 밑으로부터의 民主主義的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못하

고 형태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이다.

黨官僚的 國家權力도 감소되지 않았고 오직 새로운 형태의 통제기능을 가진 국가권력으로 변신해 버렸으며 시장개혁 그 자체에 있어서도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直接行政官僚的 市場機構가 間接行政官僚的 市場機構로 대체될 뿐이다. 국가기구에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개혁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조차도 국가기구의 권위주의적 권력과 위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화시켜 놓았다. 이것은 결코 국가권력의 민주화가 아니며 독재적 정치형태가 指揮主義(Dirigismus)的 정치형태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시장개혁에 있어서도 공급되어지는 생산물과 유용한 자원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실물적 계수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재정계수의 조정을 통한 간접행정지시로 바꾸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어서 시장기구는 행정관료의 指示的 性格을 그대로 지니게 되어서 단지 지시의 형태만이 바뀌어질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참다운 經濟調整機構로서의 市場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인상, 인플레이션, 생활수준의 저하 등의 책임을 客觀的 市場法則에 전가시킬 수는 있게 되었다.

어쨌든 소련은 1990년 10월 19일에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最終案⁶⁾이 소련 최고회의에서 채택됨으로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이미 결정되어진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의미는 분명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수백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어온 부르조아계급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며 無制限的 利潤追求와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에는 그러한 부르조아계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 이윤추구와 자유경쟁을 위한 조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련에서의 시장경제의 의미와 성격은 맑스주의적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사회적 必要勞動時間과 그것에 의한 모든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장으로서의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면 소련경제의 위기는 더욱더 확대 심화되어질 뿐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자

6) Pravda second edition 18 Oct. 1990(영어본)참조

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도 경제적 문제의 시장을 통한 해결은 유리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위기적 상황 하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관료적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소련의 급진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幻想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오늘날 價格暴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억압된 가격이 시장경제기구를 도입해서 공개적인 시장가격으로만 되면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비어있는 商品陳列場들이 시장가격으로 전환되어서 폭등되어지면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고 채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환상과 착각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소련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先進資本主義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사회주의도 건설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련은 超強大國으로부터 第3世界로 전락할 위험성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페레스트로이카의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소련에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품부족, 인플레이션의 심화, 정치적 불안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麻痺現象들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말 뿐이었고 의도대로 진행되지도 못했으며 일반 庶民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것이 없다.⁷⁾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소련의 사회경제적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물질적 생활조건 개선도 없었고 劣惡한 生必品狀況, 소비재부족의 증가, 물가의 인상 등 때문에 오히려 더 생활이 악화되어졌고 가난해졌으며 더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버렸다.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페레스트로이카의 찬란한 꿈은 실현되지 못했고 앞으로 실현될 가망성을 가진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 실패의 이유를 페레스트로이카는 원래 정확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결과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위로부터의 矛盾되고 無力한 개혁의 시기를 보여주었고 정치적 개념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단지 지식인들

7) Butenko, A. P. Zum Verlauf der Perestrojka," In: PerestrojkaZwischenbilanz, Hrsg. von Klaus Segbers, (1990, S.367).

에게 쾌감을 주었고 서구언론들을 恍惚하게 해 주었다. 소위 소련사회의 정화의 시기였고 腐敗와 자발적인 민중운동이 滿發하였던 시기였다. 분명한 개념과 틀도 가지지 못했으며 잘 다듬어진 계획도 없었고 안정된 이데올로기도 제시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오직 改革으로 시작된 混亂의 시기였고 混亂만을 가져온 改革의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도록 만든 시기였으며 정확한 대안을 요구하게 된 시기였다.

이와같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政治적으로 조직된 勞動運動을 통한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V. 蘇聯社會主義體制 管理運營에 있어서 社會主義 政治經濟學의 責任

이상에서 논술한 蘇聯社會主義 經濟體制的 발전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 있다. 그것은 소련사회주의경제체제는 경제이론과 경제법칙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행정관료적 中央計劃과 命令經濟體制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져 나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市場問題, 商品貨幣經濟問題, 所有問題, 價值法則問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이론적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러한 논의들은 현실 사회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고 논의 그 자체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 經濟理論이 없는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관리운영이 이루어져 왔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오직 중앙계획을 위한 統計的 數值作業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체제의 硬直性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 미친 결정적 영향중에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본질과는 모순되게 사회주의체제가 硬直性을 갖게 된 데에는 소련사회주의혁명시기에 형성되어진 맑스주의理論의 敎條主義化에서 그 근원을 찾아낼 수가 있다.

오늘날의 현실사회주의와 소위 정통파 맑스주의가 절대적 경직성을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맑스와 함께 엥겔스가 저술한 반듀링론(Anti-Duehring)이 출판되면서부터 開放的이고 問題指向的인 생동하는 맑스주의이론들이 閉鎖的이고 固定的이며 構成化된 하나의 정통적인 교과서

(Orthodoxie)로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이고 비판적이며 역사지향성을 지닌 맑스주의의 사적유물론이 국가철학적 기능을 가진 우주보편적 古典不變理論으로 변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1917년 10월혁명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1930년대 말경에는 최고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볼셰비즘은 처음부터 교조주의는 아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 저작을 정확히 공부한 레닌은 맑스이론이 결코 역사철학의 강제적 도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⁸⁾ 基本的인 指導原則의 總合(Ensemble)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맑스나 엥겔스와는 다르게 당의 지도자였으며 최초로 맑스주의국가를 건설한 건설자였기 때문에 확실한 맑스주의 기초이론서가 될 수 있는 교과서의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그 결과 『맑스주의의 세 가지 源泉과 構成요소(Drei Quellen und Bestandteile des Marxismus)』와 『有物論과 經驗批判論(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레닌주의의 교조주의화를 가져온 運命的 著作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스탈린의 『辨證法的 私的 有物論』에 대한 소책자가 나오면서부터 역사발전에 대한 맑스주의적 教條主義(Dogmatismus)가 탄생되었으며 맑스주의의 발전은 정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은 정치에 의해서 밀려났으며 정치의 우선과 이론의 輕視가 맑스주의의 특징이 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맑스주의이론의 경직성과 교조주의화는 필연적으로 현실사회주의의 硬直性和 劃一主義를 克服해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공해 줄 수 없었고 제 공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경제체제가 진정한 사회주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나 경제적 정체와 위기에 直面하게 된 이유는 사회주의경제이론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소련 官邊社會主義 經濟理論家들이 사회주의의 현실경제이론보다도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론만을 연구하는 데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데에도 있다.

이제부터는 정치 밑에 억눌린 상태로 부터 벗어나서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8) Lenin Werke (Bd.1. S. 211).

9) Lenin Werke (Bd.4. S. 218).

어떠한 경제법칙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연구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맑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뿐만 아니라 이론적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주의경제이론을 提示해야만 될 것이다.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경제체제는 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既存의 행정관료적 명령경제체제로부터 經濟法則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限界點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즉 정치중심적 사회주의체제로부터 경제중심적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행과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迂餘曲折을 겪게 될 것이고 일시적 逸脫과 後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소련사회의 구조개혁은 이루어질 것이고 소련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련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轉換을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도입이며 歴史的 後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맑스주의이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소련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과소평가에서부터 연유한다고 본다.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경제력은 10월혁명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 졌으며 모든 국민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失職者 까지 衣食住問題를 완전히 해결해 주고 있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복지국가들을 유지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資本主義經濟로의 轉換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와 착취관계를 반대한 대립체제인 것이지 자본의 流通機構과 規制機構을 반대하는 대립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맑스는 主旨하는 바와 같이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인 인간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맨먼저 자본주의를 正義했기 때문이다.

VI. 結 論

우리는 소련사회주의의 혁명과정과 건설과정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정책 등

을 통해서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가 얼마나 深刻한 상태에 빠져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맑스주의이론에 의하면 분명히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生産力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발전한 뒤에라야만 자본주의적 生産關係가 혁명적 변혁을 일으켜서 사회주의적 生産관계로 이행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련의 10월혁명이 이 법칙과는 무관한 상황 하에서 성공하게 되자 많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이 맑스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生産力이 生産관계에 미치는 작용법칙을 相互作用法則으로 변형시켜 10월혁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삼기도 했고 당시의 러시아자본주의발전단계를 國家獨占의인 발전단계라고 조작해서 10월혁명을 이 법칙에 근거한 사회주의혁명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이러한 現象들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나올 때까지 약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10월혁명이 맑스주의政治經濟學에 끼친 가장 不定적인 영향이며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지구상에 生産力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生産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발전되어서(자본주의적 生産관계가 生産力발전에 桎梏이 되어서) 社會主義的 革命이 일어난 나라는 한 나라도 存在하지 않는다. 소련을 위시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로 된 것은 生産力발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며 사회주의국가로 된 이후에 고도로 生産力發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生産力발전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그들은 분명히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社會主義的 發展段階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手工業的인 노동도구라는 生産力이 공장생산적인 기계라는 生産力으로 발전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국가로의 혁명이 완수되는 데에도 20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生産力이 발전해서 사회주의적 生産關係와 生産樣式이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로 혁명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주의국가들도 아직은 사회주의사회로 가기 위한 出發時點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소련의 10월혁명이나 기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革命過程이 결코 生産力발전에 의한 사회주의혁명 範疇에 포함되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生産力이 충분히 발전한 뒤에도 오늘날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적 生産양식으로서의 革命이 不可能하다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 生産力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어 모든 生産과정의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 모든 나라들은 社會主義로의 혁명

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통한 생산력발전의 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眞正한 社會主義로의 革命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國際民間經濟協議會, 『蘇聯의 經濟改革 最終案』, 1990. 11
2. Bischoff, J., and M. Menard, *Marktwirtschaft und Sozialismus*, 1990.
3. Brus, W., and K. Laski, *Von Marx zum Markt*, 1990.
4. Butenko, A.P., "Zum Verlauf der Perestroika," in Hrsg, *Perestroika Zwischen bilanz*, von Klaus Segbers, 1990.
5. Dobb, M.,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1948.
6. Eickhorn, W., A. Bauer and G. Kock, *Die Dialektik von Produktivkräften*, 1975
7. Gorbatschow, M., *Perestroika*, 1987.
8. _____, "Die Zukunft der Welt und der Sozialismus," In *Die Neue Gesellschaft*, Frankfurter Heft, Sonderheft 1, 1990.
9. _____, Die Oktoberrevolution und der Umgestaltungsprozess, In: *Sovietunion Heute*, Sondernummer November 1987.
10. _____, *Pravda* 18, Oct. 1990.
11. _____, *Pravda* 26. Nov. 1990.
12. Hrsg, J.A., *Es gibt keine Alternative zu Perestroika*, 1988.
13. Lenin, *Drei Quellen und Bestandteile des Marxismus*.
14. _____, *Materialismus und Empirio kritizismus*.
15. 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13,
16. _____, *Grunde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7. Prokla 72, *Marxismus ohne Marx*
18. Prokla 78, *Auf der Suche nach dem verlorenen Sozialismus*
19.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 Nr. 1, März 1990.
20. _____, Nr. 2, Juni 1990.